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개강총회 및 OT		
동아리 분과	학술분과	동아리명	대학생기후행동
활동시간	2026.03.25. 18:00~20:00	비고	
활동목적	1. 기후위기 문제를 널리 알리고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2.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논의가 동아리를 벗어나 시민사회 전체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학교 밖의 공간에서 행동한다.		
활동내용 및 소감	장소 : 멀티미디어관 108호 활동내용 : 새 학기의 시작을 알리는 개강총회와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우리가 모인 이유인 '기후위기 대응'의 가치를 되새기고, 앞으로 펼쳐나갈 다채로운 발걸음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모임에서 가장 깊이 공감했던 점은 기후위기가 단순히 연구실이나 동아리방 안에서만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속가능하고 푸른 생태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생들이 직접 학교 벽을 넘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며, 시민사회 전체가 이 심각성을 함께 인지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상과 사회적 연대를 넘나드는 구체적인 월별 로드맵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선 4월에는 시민들에게 일상 속 환경 보호의 즐거움을 보여줄 수 있는 해변 플로깅 대결, 비건 맛집 탐방, 제로웨이스트 샵 방문 등 가볍지만 뜻깊은 번개 모임들로 첫걸음을 떼고자 합니다. 5월에는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기후정의가 선다"는 신념을 안고 광주로 내려가, 5·18 국립민주묘지와 전남대 등 역사적 공간을 거닐며 전국의 청년들과 연대할 예정입니다. 이어 6월에는 강원도 화천의 농가를 찾아가 땀 흘리며 식재료의 소중함과 농민들의 삶을 몸소 배우는 농촌 연대활동을, 7월에는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대중들과 소통하며 우리가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하는 이유를 외치는 '기후 방법대' 현장 실천을 전개하기로 뜻을 모을 예정입니다. 소감 : 이번 첫 모임은 우리가 지향하는 역할이 단순히 길가의 쓰레기를 줍는 일회성 플로깅 동아리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한 계기였습니다.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의 세미나나 개인의 소소한 실천을 넘어, 학교 밖 광장에서 대중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사회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동아리의 활동 목적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단순히 계획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던 이유는, 4월의 일상적인 실천부터 7월의 뜨거운 현장 연대까지 우리가 걸어갈 모든 행보가 결국 시민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소중한 날갯짓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환경 보호를 넘어 역사와 농촌, 그리고 도심 속 광장을 아우르며 사회 전반의 연대를 도모하는 넓은 스펙트럼의 활동들을 보며 기후정의가 얼마나 우리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대학생 기후행동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이번 학기 동안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넓혀갈 현장 행동들에 열정적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기타 :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설명을 담은 ppt입니다. 해당 내용은 대학생 기후행동 경기지부 활동중심의 설명이며, 부원들에게 설명할때에는 부가적으로 비건 요리교실과 같은 경희대 지부 자체의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 했습니다.		

4월 활동 계획

번개 모임 : 기후 관련 활동이라면 뭐든 가능!



플로깅 대결



비건 맛집 식당 방문



제로웨이스트 샵 방문



5월의 활동 계획

5.18 광주 역사기행



518 국립민주 묘지와 전남대등 민주주의에서 상징적인 공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전국의 대기행 사람들과 만나볼 수 있는 첫번째 기회~

작년에는 '민주주의 없이는 기후정의도 없다'는 주제로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6월의 활동 계획

농민학생 연대 활동



강원도 화천에 있는 마을들을 방문해 평소 우리가 먹는 식재료들의 감사함을 농민들의 삶을 체험하고 도움으로써 체감할 수 있습니다!

7월의 활동 계획

기후 방법대



-기후위기를 현장에서 느끼고 연대하고
지 합니다.

-기후행동을 통해 우리가 행동해야하는
이유를 합치할 수 있습니다!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김진아

김진아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학교 주변 플로깅		
동아리 분과	학술분과	동아리명	대학생기후행동
활동시간	2026.04.01. 18:00~20:00	비고	
활동목적	1. 기후위기 문제를 널리 알리고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2.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논의가 동아리를 벗어나 시민사회 전체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학교 밖의 공간에서 행동한다.		
활동내용 및 소감	장소 : 서천마을 활동내용 : 이번 활동은 동아리 부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동시에, 우리가 매일 오가는 학교 주변의 환경과 기후 변화 현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부원들과 함께 학교 근처와 서천마을 일대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상 속 공간에 숨겨진 기후위기와 구조적인 환경 문제들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예년보다 눈에 띄게 빨라진 꽃들의 개화 시기였습니다. 따뜻해진 날씨로 인해 철없이 일찍 피어버린 꽃들을 보며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를 피부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의 고질적인 문제인 흡연 공간 부족 현상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정된 흡연구역이 없다 보니 서천마을 골목길과 길거리 곳곳이 사실상 무분별한 흡연 장소처럼 이용되고 있었고, 그 결과 엄청난 양의 담배꽂초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부원들과 함께 이 꽂초들을 하나하나 수거하며, 단순한 개인의 양심 문제를 넘어 학교 주변의 환경 인프라 개선과 시민 의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습니다. 소감 : 부원들과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며 이야기를 나눈 덕분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따뜻한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일상이 이미 기후위기와 환경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음을 깨달은 묵직한 활동이었습니다. 단순히 '우리 동네를 깨끗이 만들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플로깅이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빨리 피어난 꽃들을 보며 기후 변화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당장 우리의 계절을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특히 서천마을 곳곳에 구별 없이 널려 있던 담배꽂초들을 주으면서는 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제대로 된 흡연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거리 전체가 오염되는 모습을 보며,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는 결국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사각지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금 배웠습니다. 이번 활동은 학교 담장 밖의 시민사회 공간에서 우리가 왜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부원들과 함께 온몸으로 체감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기타 :꽃의 개화가 이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플로깅을 하며 찍은 꽃 사진.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김진아

김진아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 동 명	초청 세미나 (1회차)		
동아리 분과	학술분과	동아리명	대학생기후행동
활동시간	2026.04.08 18:00~20:00	비고	
활동목적	1. 기후위기 문제를 널리 알리고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2.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논의가 동아리를 벗어나 시민사회 전체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학교 밖의 공간에서 행동한다.		
활동내용 및 소감	장소 : 멀티미디어관 108호 활동내용 : 이번 활동은 경희대학교 대학생 기후행동에서 활동하셨던 환경공학과 선배님이 직접 동아리를 방문해 주시면서, 선후배 간의 따뜻한 연결고리를 만들고 기후위기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나누는 특별한 세미나로 진행되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최근 우리가 직접 목격했던 '앞당겨진 꽃들의 개화 시기'가 생태계에 미치는 치명적인 연쇄 작용을 다루었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꽃이 너무 일찍 피어버리면 꿀벌의 활동 주기와 어긋나게 되고, 이는 결국 꿀벌의 대량 폐사로 이어진다는 구조적 문제를 배웠습니다. 나아가 생태계의 핵심 매개자인 꿀벌의 실종이 단순히 곤충 한 종의 소멸을 넘어, 인류를 포함한 지구상 모든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멸종으로 이끄는 거대한 재앙의 신호탄이라는 점을 깊이 있게 짚어보았습니다.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일방적인 강연을 넘어, 부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연대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기후재난 뉴스를 각자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온라인 공유 플랫폼인 '패드렛(Padlet)'에 실시간으로 올려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원들은 각자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기후위기 현장과 재난 소식을 벽보처럼 채워 나갔고, 이를 통해 시민사회가 당면한 기후적 재앙의 다각적인 실태를 한눈에 확인하며 열띤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소감 : 동아리 방을 찾아와 주신 환경공학과 선배님과 만남은 단순한 강연을 넘어, 대학생 기후행동이라는 이름 아래 세대를 뛰어넘어 기후정의의 가치를 잇는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게 해 준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특히 얼마 전 플로깅을 하며 신기하게만 바라봤던 '이른 개화'가 실질적으로는 꿀벌의 생명을 앗아가고, 궁극적으로 인류를 포함한 전 생명체의 멸종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나비효과를 배우며 등 뒤가 서늘해지는 경각심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밟 디딘 일상의 변화가 지구 반대편의 거대한 재난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실감했습니다. 세계의 기후재난 뉴스를 찾아 패드렛에 공유하는 참여형 활동 역시 무척 뜻깊었습니다. 텍스트로만 접하던 기후위기를 생생한 글로벌 뉴스로 마주하면서, 우리가 왜 학교 담장을 넘어 시민사회와 세계를 향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다시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 부원들이 어떤 재난에 가슴 아파하고 어떤 문제에 주목하는지 서로의 시선을 공유할 수 있어 더욱 밀도 높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자양분 삼아, 눈앞의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한 현장 행동에 더욱 단단한 마음으로 연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김진아

김진아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등산 플로깅		
동아리 분과	학술분과	동아리명	대학생기후행동
활동시간	2026.04.11. 12:00~13:30	비고	
활동목적	1. 기후위기 문제를 널리 알리고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2.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논의가 동아리를 벗어나 시민사회 전체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학교 밖의 공간에서 행동한다.		
활동내용 및 소감	장소 : 아람산, 매미산 활동내용 : 기후행동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개인의 아주 작은 실천 또한 기후행동이라는 것을 회원들이 몸소 느낄 수 있도록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학교 뒤의 아람산과 매미산은 주말마다 사람들이 자주 등산하는 곳으로, 그만큼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여 운동 삼아 등산 플로깅을 갔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플로깅에서 비닐봉지, 페트병을 포함한 일회용품이 많이 발견했고 쓰레기 봉투를 꽉 채웠습니다. 이후 학교 분리수거장에서 직접 분리수거까지 끝마쳤습니다. 소감 : 다양한 동식물들이 공존하는 산에 이토록 쓰레기가 많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고, 회원들과 함께 산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행동이나 습관들(ex. 산에 갈 때는 페트병을 사용하지 말고 텀블러를 들고가기)을 의논할 수 있었습니다. 플로깅 후 뒤편에서 “시험기간이라 계속 기숙사에서 공부만 했는데 산에 가서 운동도 하고 쓰레기도 주우니 기분 좋았다”, “오랜만에 등산을 한 건데,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쓰레기들을 오늘은 집중해서 바라보니 이만큼 쓰레기가 많다는 것에 놀랐다.” 등 회원들의 생생한 소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김진아

김진아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518광주기행 기후정의 역사캠프		
동아리 분과	학술분과	동아리명	대학생기후행동
활동시간	2026.05.16.~05.17	비고	
활동목적	1. 기후위기 문제를 널리 알리고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2.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논의가 동아리를 벗어나 시민사회 전체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학교 밖의 공간에서 행동한다.		
활동내용 및 소감	장소 : 광주 - 금남로 일대(전일빌딩, 구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전남대학교, 국립5.18민주묘지) 활동내용 : 기후위기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적용되는 기후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후정의’는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공론장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늘 함께합니다. 실제로 환경운동은 민주화운동의 큰 흐름 속에서 함께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광주기행에서는 민주주의 없이는 기후정의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하신 민주 열사님들을 기림으로써 앞으로 우리 대학생기후행동이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함께 의논하고자 했습니다. 1일차에는 금남로 일대에서 민주화운동 사적지로서의 금남로와 구 전남도청에 대한 해설을 듣고, 전일빌딩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일빌딩에서는 헬기 사격의 증거로써 그 의미와 사건의 진실에 대한 도슨트의 해설을 함께 들었고, 이후 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당대의 자료들을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전남대학교에 모여 전국의 대학생들과 함께 진행하는 대학생 대동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오월이 비추는 평화, 우리가 만드는 대동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당시의 전남대학교 학생들처럼 대학생들이 지켜나가야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생각해보고, 함께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동제가 끝나고 숙소로 도착해서는 하루 광주기행의 소감을 나누었고, ‘현대 한국사회의 문제와 해당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광주정신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래 토론했습니다. 2일차는 민주화운동 당시 산화하신(혹은 그 이후 사망하신) 민주 열사님들과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다가 돌아가신 열사님들이 계신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했습니다. 구묘역과 신묘역에서 학생 해설단의 해설을 듣고, 함께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공동참배를 진행하였습니다. 소감 : 민주주의와 기후정의의 관계성은 처음 들었을 때에는 그 직접성이 모호해서, 해당 흐름과 연대의식을 회원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깊이 당시의 광주에 마음 아파하고, 해당 역사를 배우려고 하는 회원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회원들 대부분 광주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광주기행이 끝난 후 소감을 나누는 자리에서 “한 번쯤은 오고 싶었는데 올 수 있어서 기뻐다.”, “대학생기후행동 뿐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해당 일을 기억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걸 보고 감동 받았다. 나 또한 무관심해지는 걸 경계해야겠다.”, “사람이라면 양심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일이고, 왜곡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더 공부해야겠다.” 등 광주기행으로부터 느낀 것들이 많았다는 소감을 나누어주어서 의미 있는 역사캠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활동사진
(3매 이상)



대학생기후행동 경희대지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님을 위한 행진곡 中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김진아

김진아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 동 명	학내 쓰레기 분리수거		
동아리 분과	학술분과	동아리명	대학생기후행동
활동시간	2026.05.20. 18:00~19:00	비고	
활동목적	1. 기후위기 문제를 널리 알리고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2.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논의가 동아리를 벗어나 시민사회 전체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학교 밖의 공간에서 행동한다.		
활동내용 및 소감	장소 : 멀티미디어관 활동내용 : 평소 멀티미디어관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쓰레기통이 꼭 차면 음료수를 다 먹은 일회용 컵을 쓰레기통 위에 그대로 올려놓고 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고, 그런 쓰레기 수가 점점 많아져 일회용품이 제대로 세척되지 않고 분리수거조차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비가 와서 야외에서 플로깅을 못하는 대신, 실내에서라도 그런 쓰레기들을 함께 치움으로써 미관 개선과 제대로 된 분리수거를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1층에서부터 7층까지 함께 순찰하면서 쓰레기통 위 쓰레기들을 하나씩 치웠고, 일반 쓰레기통에 있는 재활용품들도 꺼내 세척 후 분리수거를 진행했습니다. 소감 : 늘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직접 치울 생각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회원들과 함께 쓰레기들을 정리함으로써 학내의 제대로 된 분리수거에 실천으로 기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시간상 멀티미디어관만 정리했지만, 도서관이나 외대 앞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등 여러 곳에서 이렇게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다는 얘기를 회원들과 함께 나누며 학내 분리수거 문제에 새로운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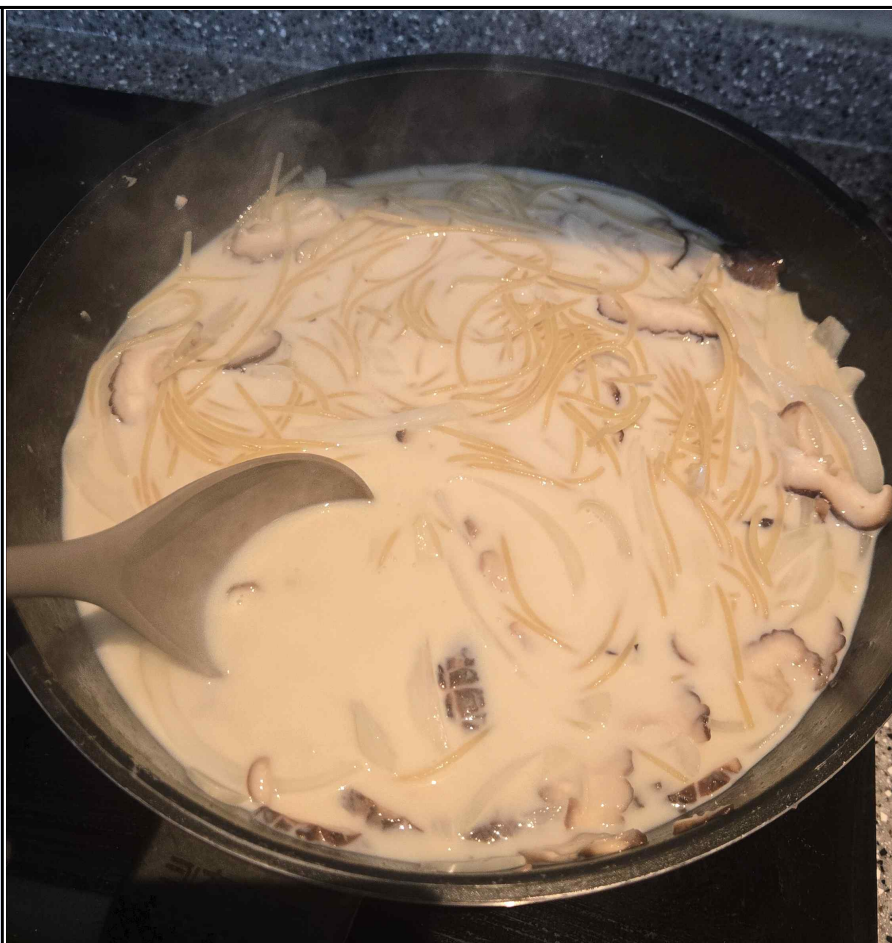
대표학생 : 김진아

김진아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 동 명	비건 요리교실		
동아리 분과	학술분과	동아리명	대학생기후행동
활동시간	2026.05.08. 16:00~20:00	비고	
활동목적	1. 비건 요리 체험을 통해 지속가능한 식문화와 환경보호의 가치를 확산한다. 2. 참여자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건 요리법을 배우고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활동내용 및 소감	장소 : 우만종합사회복지관 활동내용 : 이번 활동은 비건 식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가치를 배우기 위한 비건 요리교실로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식물성 식재료를 활용해 동물성 재료 없이도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배우며, 환경과 식생활의 관계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이 직접 두유 크림 파스타와 비건 브라우니를 만드는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두유를 활용해 부드러운 크림소스를 만들고, 달걀과 우유 대신 식물성 재료를 활용한 브라우니를 완성하며 비건 요리의 다양한 조리법을 익혔습니다. 요리를 함께 만드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식물성 식재료의 특성과 조리법을 배우고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며 즐겁게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소감 : 이번 비건 요리교실은 단순히 요리를 배우는 시간을 넘어, 일상 속 식생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체험하고 지속가능한 소비를 실천해 볼 수 있었던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평소 비건 음식은 어렵고 낯설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두유 크림 파스타와 비건 브라우니를 직접 만들어 보며 식물성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맛있고 다양한 요리를 완성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식습관의 변화도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며, 일상 속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원들과 함께 재료를 손질하고 음식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동아리 구성원 간의 유대감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비건 식단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탄소배출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하나의 실천 방법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환경을 위한 행동이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식탁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친환경 식생활을 실천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하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김진아

김진아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 동 명	종강총회		
동아리 분과	학술분과	동아리명	대학생기후행동
활동시간	2026.06.04 18:00~21:00	비고	
활동목적	1. 기후불평등의 개념과 이해하고, 기후위기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학습한다. 2. 역할극을 통해 다양한 취약계층의 입장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활동내용 및 소감	장소 : 멀티미디어관 108호 활동내용 : 이번 종강총회는 기후불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후위기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후위기가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같은 재난이라도 개인과 계층에 따라 피해의 정도와 회복 능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학습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모두가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후정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어진 활동에서는 참가자들이 노인, 장애인, 농어민, 아동, 저소득층 등 다양한 기후 취약계층의 역할을 맡아 역할극을 진행했습니다. 각 팀은 자신이 맡은 인물의 입장에서 폭염, 집중호우, 한파 등 기후재난 상황을 가정하고, 해당 계층이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분석했습니다. 이후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함께 논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폭염 쉼터 확대, 주거환경 개선, 재난 지원 강화, 이동권 보장, 농업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뒤풀이에서는 한 학기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뒤풀이를 진행하며 부원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먼저 한 학기 동안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후행동 실천에 기여한 부원들을 대상으로 상장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각 부원의 활동과 개성을 반영한 다양한 상장을 준비하여 수여했으며,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장을 받은 부원들은 수상 소감을 전하며 활동을 통해 느낀 점과 기억에 남는 순간을 공유했고, 다른 부원들도 박수와 응원으로 함께 축하하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소감 : 이번 종강총회는 기후위기를 단순히 환경 문제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과 연결된 문제로 이해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역할극을 통해 노인, 장애인, 농어민, 저소득층 등 다양한 기후 취약계층의 입장에서 기후재난을 바라보며, 같은 재난이라도 처한 환경과 여건에 따라 피해와 회복의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각자의 역할에 맞는 정책을 직접 고민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함께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서로 다른 시각과 해결 방안을 공유할 수 있었고, 기후정의가 왜 중요한 가치인지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문제가 아니라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그리고 더		

큰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기후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 실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행동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강총회를 마무리하며 한 학기 동안 함께 활동한 부원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기타: 기후불평등에 대한 설명을 담은 ppt입니다. 기후불평등의 개념과 계층, 세대, 국가간의 불평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2. 기후불평등: 국가

기후위기 문제의 남북 양극화



3. 기후불평등: 계층

생물학적 취약계층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노숙인, 쪽방촌 거주자 등

다양한 취약계층 위한 '맞춤형 정책' 필요

ex) 농/어민: 재해 지원, 바뀐 농법/열대 어종 활용 방안 제공
주거 취약 지역 거주자: 이주 지원 강화
목외 노동자: 사업주 보건 조치 의무 강화, '작업 중지권' 논의

4. 기후불평등: 세대

알파/Z세대가 살아갈 세상?

기후위기가 가속화된다면...

일일 최대 강수량 22% 증가
폭염일수 27.5일 증가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김진아

김진아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농민학생연대활동		
동아리 분과	학술분과	동아리명	대학생기후행동
활동시간	2026.06.24~2026.06.28	비고	
활동목적	1. 농촌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농민들의 삶과 농업의 현실을 이해하고 농민과의 연대를 실천한다. 2. 먹거리와 기후위기의 관계를 배우며 연대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활동내용 및 소감	장소 : 강원도 화천군 활동내용 : 이번 농민학생연대활동은 농촌 현장을 직접 방문해 농민들의 삶과 농업의 현실을 이해하고, 농민과 학생이 함께 교류하며 연대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농촌이 기후위기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는 점을 배우고, 우리의 먹거리가 생산되는 과정과 농업이 사회에서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농업이 단순한 산업을 넘어 식량안보와 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라는 점을 이해하며,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은 농가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실제 농촌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농작물 수확과 선별, 잡초 제거, 농장 환경 정비 등 농가의 상황에 맞는 작업을 함께하며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돕고 농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업 과정과 농민분들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 농민들로부터 농작물 재배 과정과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최근 농촌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소감 : 이번 농민학생연대활동은 농촌 봉사활동을 넘어 농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함께 연대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직접 농작업에 참여하며 평소 쉽게 접하지 못했던 농업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고, 작은 농작물 하나가 우리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농민들의 땀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이상기후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체감하면서,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이상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먹거리와 연결된 중요한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농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협력하며 활동하는 과정에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연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가진 관심과 실천이 농촌 사회에 작은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느꼈으며, 공동체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의 중요성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농업과 환경,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 체계를 위한 활동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김진아

김진아